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A Study on Guam LeeJung's Publication of Books

안 현 주(Hyeonju Ahn)*

< 목 차 >

- | | |
|----------------|-------------|
| I. 緒論 | 1. 구암의 도서간행 |
| II. 李楨의 生涯 | 2. 주제별 특징 |
| III. 李楨의 圖書刊行 | 3. 간행처 |
| 1. 편찬활동 | 4. 간행시기 |
| 2. 도서간행 | 5. 판종 |
| IV. 刊行된 圖書의 성격 | V. 結論 |

초 록

이 연구는 16세기 성리학자이며 문신이었던 구암(龜巖) 이정(李楨)의 도서간행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구암은 20종의 도서 편찬·교정·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3종의 서적을 편찬·간행하였고, 4종의 서적을 교정·간행하였으며, 12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황, 남궁침, 김충갑, 김홍 등이 도움을 주었다. 간행된 서적들은 1종을 제외하고 모두 성리학관련도서였고, 서적의 간행시기는 1554년부터 1566년까지로 구암이 성주, 경주, 순천에서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였다. 또한 서지사항이 확실한 19종은 모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키워드: 구암, 이정, 이황, 남궁침, 『성리유편』, 『경현록』, 『황명명신언행록』, 『수서시』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publication of books by Guam LeeJung who is a Confucian scholar and a public official in 16th century. He played important roles in editing, correcting, and publishing of 20 books, of which 3 books were edited and published by him: 4 books corrected and published; and 12 books published. His works were helped by contemporary scholars and officials such as LeeWhang, NamgungChim, KimChungkap, and KimHong. All the books are related with Confucian studies except one book, and they were published in the period from 1554 and 1566 when he serve as the head of counties, Sungju(성주), Kyungju(경주), and Sunchun(순천). The publication record of one book is unclear, and all others were printed with woodblocks.

Keywords: Guam, LeeJung, LeeWhang, Namgungchim, 『Sungliyupyun』, 『Kyunghyunrok』, 『Whangmyungmyungshinunhangrok』, 『Suseosi』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 접수일: 2011년 2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3월 9일 • 최종심사일: 2011년 3월 28일

I. 緒論

구암(龜巖) 이정(李楨, 1512-1571)은 사천현(泗川縣)에서 출생하였으며, 25세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수많은 경관직(京官職)과 지방관을 역임하였으며, 효행과 치적으로 국왕의 포상과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는 사천에 유배 온 송인수(宋麟壽)와 퇴계의 벗인 어득강(魚得江)에게 배웠으며, 퇴계와 남명을 스승으로 모셨고, 특히 지방의 수령으로 재임할 때에는 퇴계의 도움을 받아 정사(政事)와 도서관행에 힘썼으며, 서약서원, 옥천서원, 구암정사를 건립하여 서원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의 서적출판에 관한 연구¹⁾의 조사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현존본 중 순천부사(順天府使) 이정이 간행한 서적이 여러 종 발견되었다. 전남지역에서 간행된 서적은 150여종에 불과하지만, 이 가운데 이정은 편찬자로, 교정자로, 간행자로서 여러 서적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구암은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 『성리유편(性理遺編)』, 『경현록(景賢錄)』, 『수서시(壽瑞詩)』 등을 편찬하였다. 또한 『구암집』 ‘행장’에는 그가 생전에 간행한 16종의 도서명이 수록되어 있고, 3종의 ‘발문’이 들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도서를 간행한 사실은 조선조 출판사에서 뛰어난 업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암에 관한 자료는 구암의 문집인 『구암집(龜巖集)』과 사천문화원에서 간행한 『구암사상 학술집(龜巖思想學術集)』 및 그 외 몇 편의 논문만이 있는 실정이다.

연구방법은 『구암집(龜巖集)』²⁾에 나타난 도서편찬과 간행 사실을 바탕으로 현존본 조사를 하였다. 주요 도서관의 장서목록에 수록된 도서들을 조사하여, 이정의 도서편찬과 도서관행의 경위를 살펴보고, 간행도서에 관해서 주제별, 시기별, 지역별, 판종 등을 분석함으로써 16세기 성리학서적의 출판경향과 지방출판문화의 일면(一面)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李楨의 生涯

이정의 자는 강이(剛而), 호는 구암(龜巖),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구암은 중종 7(1512)년 12월에 조상의 세거지인 사천(泗川)현 구암(龜巖)동에서, 처사인 담(湛)과 어머니 진주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7세에 성균관에서 유학하였고, 이때에 규암(圭巖) 송인수(宋麟壽)³⁾가

1)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46집(2010), pp.159-198.

2) 『구암집(龜巖集)』은 『한국문집총간』(제33권)에 수록된 것과 사천문화원에서 번역한 『국역 구암집』을 이용하였다.

3) 송인수(宋麟壽) : 1499 - 154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미수(眉叟) 또는 태수(台叟), 호는 규암(圭巖). 엄용공(嚴用恭)에게 배웠고, 김안국(金安國)에게 지도를 받았다. 중종 16(1521)년 별시문과에 갑과

사헌현에 귀양 와 있었기에 고향으로 내려 와 스승으로 섬기고 배웠다. 영천(榮川)군수로 재임할 때에 퇴계와 만나 많은 교류와 가르침을 받았고, 퇴계와 절친한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인근에 살던 남명(南冥) 조식(曹植)과도 교류하였다. 중종 31년 봄 별시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들어섰다. 성균관전직(成均館典籍), 성절사서장관(聖節使書狀官), 좌승지(左承旨),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의 경관직(京官職)과 영천군수(榮川郡守), 선산부사(善山府使), 청주목사(淸州牧使), 경주부윤(慶州府尹), 순천부사(順天府使) 등 지방수령을 지냈다.

15세기에 조선사회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결과 갈등양상이 심화되었는데, 사림파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과 그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성리학에 전념했던 학문을 조정에서 직접 실현해 보려고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은거와 유배기간을 통해 학문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도 하였다. 김종직의 문인인 김굉필과 정여창과 같은 학자들은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삶을 강조하였고, 16세기에 들어서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조야(朝野)의 곳곳에서 성대한 교육의 장을 열었고 그 중심인물들은 조광조, 성수침, 이언적, 이황, 김안국, 김인후, 서경덕, 이항, 조식 등이었다.⁴⁾

이들 중에서 구암의 생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이는 퇴계였는데, 이들은 30여 년간 사제관계를 유지하며 학문과 정사를 논하였다. 퇴계와 구암이 주고 받은 편지가 80여편이나 되고,⁵⁾ 퇴계는 이정이 도서를 간행할 때마다 교정과 자문을 해주었고, 발문(跋文)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구암집』의 '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일찍이 퇴계선생을 스승으로 섬겨 학문을 향한 일념이 단사(丹砂)처럼 빛났다. 구암이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에는 목을 양식(宿春)을 신도록 명하고 해마다 가서 뵈었으며 남들의 비방도 피하지 않았다. 무릇 관직에 있거나 향거할 때에 수 십년간 연편누독(聯篇累讀)이 거의 빈 달이 없었으니, 의심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질문하였고, 정사를 베풀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문을 구하였으며, 서로 믿고 의중(倚重)함이 이처럼 돈독하였다.⁶⁾

로 급제하여 홍문관정자가 되었다. 사헌부지평, 홍문관의 교리·부응교 등을 역임하면서 당시 유행한 사치풍조를 배격하고 교육진흥책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김안로의 재집권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김안로일파에게 탄핵을 받아 사천으로 유배되었다. 인종이 즉위하자 동지사(冬至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와 다시 대사헌이 되어 윤원형을 탄핵하였는데,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한성부좌윤에 있다가 탄핵을 받고 좌직당하여 청주에 은거하여 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성리학에 밝았고 성리학을 보급하기에 힘썼다.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사림의 추앙을 받았으며 제주의 굴림서원(橘林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구암집』이 있다(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인용 2011. 2. 7]).

4) 李相弼, "16세기 儒學思想의 全開와 南冥의 學問," 南冥學研究, 제3권(1993), pp.9-10.

5) 『퇴계집』 권21과 권22에는 '答李剛而'로 40여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으나, 『구암집』에는 퇴계선생에게 드린 시 몇 편과 제문만이 남아있어, 구암의 저술이 거의 산일(散逸)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李楨, 『龜巖集』, 권2, '行狀,' 한국문집총간 제33권.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1호)

또한 경주부윤으로서 2년여 재직하면서 치읍(治邑)·교육·도서관행에 이르기까지 주요문제를 퇴계와 서신으로 왕복하며 자문을 구하고, 도산서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서악정사(西岳精舍) 건립과 건물의 액호문제와 성리학관련 도서 간행문제를 두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다.⁷⁾

구암은 경주에서는 서악정사를 짓고 강화했고, 순천에서는 옥천정사(옥천서원)를 지었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향리에 구암정사를 짓고 제자를 길렀다. 구암 사후에 그를 존모(尊慕)하던 사천의 유생들은 구암이 건립한 구암정사를 '사천유학'의 본산으로 삼아 광해군 3(1611)년 이곳에 구산사(龜山祠)를 세우고 이를 구계서원(龜溪書院)으로 발전시켰으며 숙종 2(1676)년에는 사액서원이 되었다.⁸⁾

순천부사시절 이후에 모친상을 당하고 향거하고 있을 때에 선조 2년 4월에 진주음부옥(晉州淫婦獄) 사건이 발생하여 구암과 남명 및 남명문도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오해가 생겼고, 그 사건은 남명과 구암이 절교하는 사태로 악화되었다. 선조 2(1569)년에 홍문관부제학, 병조참의에 제수받았으나 부임하지 않고 향거하다가 선조 4(1571)년 7월에 60세로 별세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선조임금이 오건(吳健)에게 제문(祭文)을 짓게 했는데,

국량이 넓고 깊었으며 품모가 엄정하면서도 조용했고 말하는 것도 가려가면서 했다. 성품에 효도우애(孝道友愛)가 있었으며 사물을 대함에 관용을 베풀었고 처신에는 절도가 있어 근거(根基)가 확연했다. 경술(經術)로서 나를 도왔으며 가정의 효를 국가의 충(忠)으로 승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소(牛)를 잡을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도 굽혀서 닭을 잡았지만 뜻은 항상 소에다 두고 있었다. 먼저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학문과 덕행을 숭상함으로써 이서(吏胥)들은 그 위엄에 복종하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⁹⁾

라며 구암을 추모하였다. 사관(史官)들은 구암에 대해 효행이 지극하고,¹⁰⁾ 맑고 대범하게 군(郡)을 다스리며,¹¹⁾ 학문에 뜻을 두었고 일찍이 아버이를 위해 외직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이르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¹²⁾고 평하고 있다. 『경현당기』를 찬술한 기대승도

내 일찍이 보건대 지금 세상의 선비들은 혹 어진 이를 좋아하고 불초한 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나,

7) 李樹健, “龜巖 李楨의 生涯와 學問 및 ‘退南’과의 關係,” 龜巖思想 學術集(사천문화원, 2005), p.34.

8) 崔英成, “龜巖 李楨의 學問과 朝鮮儒學史上的 貢獻,” 龜巖思想 學術集(사천문화원, 2005), p.148.

9) 『龜巖集』 권2, 附錄 ‘祭文’.

10) 『明宗實錄』 17卷, 9年 9月 23日(辛酉)條.

11) 『明宗實錄』 25卷, 14年 6月 23日(癸亥)條.

12) 『明宗實錄』 29卷, 18年 6月 26日(壬申)條.

그 중에는 어진 이를 좋아하고 불초한 이를 미워하기를 함께하지 않은 이가 끼어있어서 다른 날 무궁한 화근(禍根)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그 화를 두려워하고 그 폐단을 염려하여 감히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구암)는 홀로 유속의 비방과 칭찬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훌륭한 일을 하였으니, 그 일은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이후의 마음이 어찌 단지 누대나 쌓고 경현당이나 짓는 일에 있겠는가. 실체는 바로 그 도(道)를 좋아해서일 뿐이다. 도를 좋아하고 힘써서 날마다 부지런히 전진해간다면 또한 경현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¹³⁾

라고 구암을 평하고 있다.

구암이 처음 벼슬하여 죽을 때까지의 햇수가 36년이었는데, 이 중 외직(外職)에 보임된 것이 19년이고 산관(散官)에 있거나 상을 당하여 벼슬을 버렸거나 병 때문에 사직하고 향거한 기간이 13년이고, 조정에 있었던 것은 겨우 4년이었다.¹⁴⁾

『구암집』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구암의 생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中宗 31(1536)年 2月 문과(文科) 급제, 3月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7月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 9月 사헌부감찰겸주장감시관(司憲府監察兼秋場監試官)

中宗 32(1537)年 4月 선교랑(加宣敎郎), 9月 성절사서장관(聖節使書狀官)/승훈랑(加承訓郎), 12月 귀국

中宗 33(1538)年 10月 형조좌랑(刑曹佐郎)

中宗 34(1539)年 4月 가승의랑 한성부판관(加承議郎 漢城府判官), 6月 호조정랑(戶曹正郎)

中宗 35(1540)年 2月 봉직랑(奉直郎), 4月 부사직(副司直), 6月 예조정랑(禮曹正郎)

中宗 36(1541)年 1月 영천군수(榮川郡守)

明宗 1(1546)年 2月 군자감첨정(軍資監僉正), 9月 숙천부사(肅川(평안도)府使), 선산부사(善山府使)

明宗 2(1547)年 9月 귀향

明宗 5(1550)年 3月 부상(父喪)

明宗 7(1552)年 6月 공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인해 수행할 수 없음, 8月 전적(典籍), 9月 직강(直講), 사성(司成), 10月 청주목사(淸州牧使)

明宗 11(1556)年 1月 청주목사 사임(辭任)

明宗 12(1557)年 8月 부호군(副護軍)

3년간 향거

13) 기대승, 국역 고봉전서 1, 성백효·이성우 역(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2007), p.368.

14) 許穆, 『국역 미수기언(眉叟記言)』 5, '龜巖李先生碣銘'(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5), p.79.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1호)

明宗 14(1559)年 6月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 7月 좌부승지(左副承旨), 8月 형조참의(刑曹參議), 12月 좌부승지(左副承旨)

明宗 15(1560)年 2月 좌승지(左承旨), 대호군(大護軍), 5月 병조참의(兵曹參議), 대사간(大司諫), 7月 호조참의(戶曹參議), 8月 예조참의(禮曹參議), 경주부윤(慶州府尹)

明宗 18(1563)年 6月 형조참의(刑曹參議), 9月 호조참의(戶曹參議), 11月 순천부사(順天府使)

明宗 21(1566)年 4月 모상(母喪)

宣祖 1(1568)年 6月 부호군(副護軍), 9月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宣祖 2(1569)年 9月 병조참의(兵曹參議), 상호군(上護軍)

宣祖 4(1571)年 7月 별세(別世)

Ⅲ. 李楨의 圖書刊行

허목(許穆)은 구암의 문집인 『구암집(龜巖集)』을 간행하면서 발문(跋文)에 다음과 같이 구암의 학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이퇴계 선생의 유고를 읽어보니 제자와의 문답 가운데 구암공 운운한 곳을 많이 보았다. 도산의 제자인 구암의 학문은 『중용(中庸)』에서 깊이 채득된 것이다. 또 옛것을 좋아하고 학문을 즐겼다고 오덕계(吳德溪: 健)와 노옥계(盧玉溪: 禎)가 지은 공의 제문에서도 모두 칭송하였다... 대개 그의 학문은 효제(孝悌)로 말미암아 그것을 미루어 성명(性命)의 깊은 경지까지 이르렀고 만사 사물에 사무쳤으나 예(禮)를 알고 본성을 완성하는[成性] 것이 그 학문의 요점이었다.”¹⁵⁾

구암은 생전에 성리학 관련서적을 부지런히 독서하였으며, 그가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에는 성리학 관련서적을 편찬하여 간행하거나, 기존의 성리학서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편찬활동과 도서간행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편찬활동

이정이 편찬하거나 편찬과 함께 간행한 책으로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¹⁶⁾ 『성리유편(性理遺編)』,¹⁷⁾ 『경현록(景賢錄)』,¹⁸⁾ 『수서시(壽瑞詩)』¹⁹⁾ 4종이 있다. 이 서적들의 간행

15) 許穆, 전게서, ‘龜巖文集跋’, p.74.

16) 『구암집』 별집 권1, ‘황명명신언행록발皇明理學名臣言行錄跋.’

경위와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

皇明名臣言行錄 / 楊廉(明) 撰 ; 李楨 編. -- 木板本. -- 慶州 : 李楨, 明宗 17(1562)年 跋
皇明名臣言行錄 9卷2冊, 皇明理學名臣言行錄 2卷1冊, 共11卷3冊 : 四周單邊 半郭 23.2 ×
17.9 cm, 有界, 12行22字 註雙行, 上下黑口, 內向花紋魚尾 : 31.9 × 21.9 cm

序 : 弘治戊午(1498)...楊廉

跋 : 嘉靖壬戌(1562)...李楨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BA2526-45 1-3)〉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은 전체 11권3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 『황명명신언행록』 9권2책과 『황명리학명신언행록(皇明理學名臣言行錄)』 2권1책이 합본된 상태이다. 이 중 9권2책으로 되어 있는 『황명명신언행록』은 명(明)나라 유학자 양렴(楊廉)이 편찬하였는데, 명대에 학문이 높은 명신들의 관련문헌에서 발췌하여 행적과 언행, 학문 등을 인물별로 저술한 전기이다. 양렴(楊廉, 1447-1527)은 명대 중기의 인물로 자는 방진(方震), 풍성(豊城 : 江西省 南昌縣의 남쪽) 출신이다. 월호(月湖) 선생이라 칭한다. 양렴은 가학을 계승하여 어렸을 때부터 문재(文才)로 알려졌고, 남경예부시랑(南京禮部侍郎), 상서(尙書)를 지냈으며, 시호는 문락(文洛)이다.

2권1책으로 된 『황명리학명신언행록』은 구암이 편집한 책이다. 1562년에 쓴 구암의 발문²⁰⁾에, 기미년(1559) 가을에 송태수(宋台叟 : 송인수)로부터 퇴계가 가지고 있던 『이학록』을 얻어보고 그 후 허태휘(許太輝 : 허엽)²¹⁾로부터 『명신록』을 얻어 읽은 후에, 송조양록(宋朝兩錄 : 송명신언행록, 이학록)에 의거하여 양렴의 『황조명신언행록』과 설문청 등 15인이 수록된 『이학록』 중에서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엮어서 계림에서 판각하였다는 간행경위가 들어 있어서 이 책은 구암이 편집하여 경주에서 간행하였음이 밝혀졌다.

17) 『구암집』 별집 권1, '성리유편보록발(性理遺編補錄跋).'

18) 『구암집』 권1, '경현록지(景賢錄識).'

19) 『구암집』 권2, '구암선생세계(龜巖先生世系).'

20) 『구암집』 별집 권1, '황명명신언행록발(皇明理學名臣言行錄跋).'

21) 허엽 : 1517년(중종 12)~1580년(선조 1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태휘(太輝), 호는 초당(草堂), 봉(筍)·균(筠)·난설헌의 아버지이다. 어려서 나식(羅湜)에게 <소학>·<근사록> 등을 배웠고,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학문을 익혔으며, 동·서인(東西人)의 대립시 김효원(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가 되어 당시 사류의 지도급 인물이 되었다. 벼슬을 30년간이나 지냈으면서 생활이 검소하였다. 구암의 벗이다. 말년에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 김정국(金正國)이 찬수한 『경민편(警民編)』을 보충 반포하고,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의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인용 2011. 2. 4]).

2) 『성리유편(性理遺編)』

性理遺編 / 李楨 編. -- 木板本. -- 順天 : 李楨, 明宗19年(1564)年 跋

1冊(115張) : 圖, 四周單邊, 半葉匡郭 : 22 × 16.3 cm, 有界, 10行15字, 版心 : 上下黑魚尾 : 26.2 × 20.4 cm.

卷首 : 嘉靖甲子(1564)…李楨 跋.

〈한국가사문학관 소장본〉

이 책은 구암이 『성리군서(性理羣書)』와 『성리대전(性理全書)』에서 주희·장식·정호·정이·진덕수·주돈이·장재·소옹·채침 등 송(宋)나라 성리학자들의 작품을 뽑아 엮은 책이다. 내용은 찬(贊) 13수, 잠(箴) 12수, 설(說) 1수, 명(銘) 33수, 오언단구(五言短句) 10수, 오언장구(五言長句) 38수, 칠언단구(七言短句) 40수, 칠언장구(七言長句) 23수, 록(錄) 1수, 문(文) 6수, 론(論) 1수, 서(序) 4수, 기(記) 9수, 부(賦) 4수, 부시(附詩) 1수, 행실(行實) 7수, 보록설(補錄 說) 5수, 행장(行狀) 1수 등으로 수록되어 있고, 끝에 인설도(仁說圖)가 있다.

구암은 발문에서, “일찍이 『성리군서(性理羣書)』와 『성리대전(性理全書)』을 읽고 이 양서(兩書)에서 찬(贊), 명(銘), 잠(箴), 시(詩), 서(序), 기(記), 문(文), 설(說), 부(賦), 논(論), 행실(行實) 제편(諸篇)을 뽑아 편집하였다. … 금년여름 방백 남궁침(南宮沈)²²⁾이 우리 부(順天府)를 순방하였다. 정(楨)이 삼가 월호선생(月湖先生 : 楊廉)이 지은 이정(二程)선생의 『유서(遺書)』,²³⁾ 『외서(外書)』²⁴⁾ 약간 권을 형행(刑行)하려는 뜻을 여쭙었더니, 공이 듣고 즐거이 열읍에 새길 비용을 들여 나누어 판각하게 하니, 한달 후에 일을 마치게 되었다. 이편(『성리유편』)을 계속 간행하기를 의뢰하니 공이 쾌히 은혜를 베풀었다.”²⁵⁾라고 적고 있다. 이 당시 남궁침은 전라도관찰사였고, 구암이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였다. 이 발문의 내용으로 보면, 남궁침의 도움을 받아 1564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유서』(『정씨유서분류』), 『외서』(『정씨외서분류』)가 먼저 간행되고 『성리유편』은 곧 이어 순천 인근의 열읍에서 분각(分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촬요』²⁶⁾

22) 1513-156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함열(咸悅). 자는 성중(誠仲). 아버지는 동북현감(同福縣監) 익(翼)이다. 1540년(중종 3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관직에 들어서서 홍문관부수찬, 강원도암행어사, 사인(舍人)·부응교(副應敎), 춘추관기사관(『증종실록』 편찬), 홍문관전한, 경상도어사, 홍문관직제학, 승정원우부승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장례원판결사·개성부유수를 거쳐 1563년 한성부우윤·한성부좌윤·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인용 2011. 2. 11]).

23) 양렴(楊廉)이 편찬한 『정씨유서분류(程氏遺書分類)』를 뜻함.

24) 양렴(楊廉)이 편찬한 『정씨외서분류(程氏外書分類)』를 뜻함.

25) 『性理遺編』, 『跋文』, “嘗讀性理羣書及大全書 … 謹拈出兩書中 贊,銘,箴,詩,序,記,文,說,賦,論,行實 諸篇彙爲一帙, … 今年夏 方伯南宮公忱巡到弊府 楨謹將揚月湖廉分類程氏兩夫子遺書外書 若干卷 稟之以刑行之意 公開而樂之 即分辦禦稟之費于列邑鳩工入梓 僅閱月而功訖 於是獲賴餘資繼刊是編寔皆相 公嘉惠.”

(선조 18년본) 순천(順天)조에는 『성리유편』과 『정씨유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정씨외서』는 누락되었다. 1902년에 대관대(大觀臺)에서 중간된 판본이 여러 도서관에 산재해 있다.

3) 『경현록(景賢錄)』

景賢錄 / 李楨(朝鮮) 編. -- 木板本. -- 順天 : 李楨, 明宗20(1565)年

2卷1冊(52張) : 世系, 四周單邊 半郭 21.8 × 17.2 cm, 有界, 11行21字, 內向2-3葉花紋魚尾 ; 30.6 × 22.0 cm

被傳者 : 金宏弼(1454-1504), 曹偉(1454-1503)

刊記 : 嘉靖44年(1565)12月日

追記 : 萬曆2年(1574)正月26日觀察使咸陽朴民獻書于昇平府東軒

續記 : 萬曆四十六年(1618)…李守光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육당 B12 A13)〉

이 책은 구암이 편찬과 간행을 주도하였는데, 무오사화로 인해 순천에 유배된 김굉필과 조위의 실기(實記)이다. 2권1책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이황이 찬한 경현록편정별록총목(景賢錄編定別錄總目), 이정(李迥)이 편찬한 한훤길선생세계(寒暄金先生世系), 사실(事實), 행장(行狀), 서술(敘述), 시부(詩賦), 보록(補錄), 매계조공사실(梅溪曹公事實), 기대승이 찬한 경현부록(景賢附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암이 전라도 순천부사로 재임할 당시 갑자사화 때 사사된 김굉필(金宏弼)을 위하여 경현당(景賢堂)을 건립, 그를 제사하게 하였다. 김굉필(1454-1504)은 김종직의 문인으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평안도 회천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에 순천으로 이배(移配)되었다. 매계(梅溪) 조위(曹偉 : 1454-1503)가 지은 김굉필의 제문에 선생은 때때로 임청대(臨淸臺)에 가서 홀로 배회하였다하니, 구암은 임청대 북쪽 벼랑에 돌을 쌓아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당을 지었는데 모두 3칸이었으며, 빙 둘러 담장을 치고 편액을 '경현당(景賢堂)'이라 걸어 선생을 사모하는 뜻을 부쳤다.²⁷⁾ 또한 구암은 승평부(순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굉필의 손자 김립(金立)과 외증손 정곤수(鄭崑壽) 등이 자료를 더하고, 김굉필의 벗이었던 조위의 실기(實記)를 모아서, 이황과 기대승의 도움과 의견교환을 통해 『경현록』을 편찬하여 1565년(명종 20)에 승평부에서 간행하였다.

26) 『攷事撮要』는 조선시대 관리나 재야의 선비에게 진요한 일용의 유서(類書)로, 1554년 어숙권의 원찬(原撰) 이후 여러 차례 속찬과 개수가 이루어진 책이다. 특히 임진왜란 이전 책판목록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 줄고에서는 선조 1년본과 선조 18년본을 참고하고 명기하였다.

27) 기대승, 전게서, p.367.

고려대 소장본에는 '嘉靖44年(1565)12月日'이라는 초간본의 간기가 있으나, 追記: '萬曆2年(1574)正月26日觀察使咸陽朴民獻書于昇平府東軒'와 續記: '萬曆四十六年(1618)…李晬光書'가 있어서 초간 이후에 다시 간행한 책이다. 또한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순천조에 수록되어 있다.

4) 『수서시(壽瑞詩)』

壽瑞詩 / 姜孟卿 等著;李楨 編. -- 木板本. -- [刊行地未詳] : 李楨, 明宗18(1563)年 跋
1冊(40張) : 四周單邊, 半葉匡郭 : 19 × 16.5 cm, 有界, 12行 18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序 : 靖乙巳(1545)…李賢輔

跋 : 嘉靖四十二年癸亥(1563)上元日眞城李滉書, 皇明嘉靖二十一年(1542)…李楨謹識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본(奎 5704)>

구암의 5대조인 이자(李穡, 1372-1461)가 강맹경(姜孟卿)으로부터 받은 축하시와 그 시에 차운한 시를 구암이 모아서 편집한 시첩(詩帖)이다. 이자는 진주의 정척(鄭陟, 1390-1475)의 누나와 혼인하였는데, 세조 4(1458)년 봄에 영의정이었던 진주 출신 강맹경(姜孟卿, 1410-1461)이 세조의 배려로 모친을 위해 연회를 베풀 때 거기 참석한 이자부부가 고령임에도 건강함을 축하하며 '수서시(壽瑞詩)'를 지어주었다. 그 이듬해에 이자부부의 88세때에 그 처남인 정척이 차운(次韻)했으며, 그와 함께 진주의 인사들(安知歸, 趙孝全, 李淑城, 鄭穰 등)이 차운하였다.²⁸⁾ 이 시들을 모아서 후손인 구암이 영천군수로 재임할 때(1542년)에 편집하였고, 예안에 향거하고 있던 이현보(李賢輔)에게 서문을 받았고, 1563년에 이항이 발문을 썼다. 또한 규장각에 소장된 『수서시(壽瑞詩)』(奎 5704)는 『續集』이 들어 있는데, 『속집』에는 이항복(李恒福, 1556-1618), 이덕형(李德馨, 1561-1613)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항복이나 이덕형은 구암보다 후대의 인물이므로 구암 사후(死後)에 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계명대, 고려대에도 소장되어 있다. 즉 『수서시』는 구암이 편집한 것은 확실하나, 생존시 간행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2. 도서간행

『구암집』의 '행장'에는 이정이 도서를 간행할 때에 퇴계와 서신을 왕복하며 정정(訂定)하였다는 기록과 그가 간행했던 도서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도서들은 『공자통기(孔子通記)』, 『이정수언

28) 李樹健, 전계서, pp.25-26.

(二程粹言)』, 『정씨유서(程氏遺書)』와 『외서(外書)』, 『이락연원속록(伊洛淵源續錄)』, 『염락풍아(濂洛風雅)』, 『격양집(擊壤集)』, 『연평답문(延平答問)』, 『주자시집(朱子詩集)』, 범태사(范太史)의 『당감(唐鑑)』,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 설문청(薛文淸)의 『독서록(讀書錄)』, 호경재(胡敬齋)의 『거업록(居業錄)』,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 『리학록(理學錄)』, 『의무려선생집(暨無間先生集)』 등 16종이다. 현존본 조사를 통해 이들 도서의 서지사항과 간행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文公家禮儀節』

文公家禮儀節 / 朱熹(宋) 撰 : 丘濬(明) 輯. -- 木板本. -- 淸州牧 : 李楨, 明宗 10(1555)年
零本3冊 : 四周單邊 半郭 20.1 × 14.5 cm, 有界, 9行17字 小字雙行, 內向混入花紋魚尾 : 29.5 × 19.7 cm

表題 : 家禮

序 : 成化甲午(1474)...瓊山丘濬序

跋 : 嘉靖乙卯(1555)...金忠甲²⁹⁾跋

刊記 : 嘉靖乙卯(1555)夏淸州牧開刊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貴 407 1/만송 貴 407 2/만송 貴 407 4)〉

송(宋)의 주희(朱熹, 1130-1200)가 편찬한 것으로, 『가례(家禮)』에 대해 『예기(禮記)』, 『한서(漢書)』 등 40여 종의 문헌을 참고해 주석하여 펴낸 것을 명(明)의 성리학자 구준(丘濬, 1418-1495)이 편집한 책이다. 구준은 경산(瓊山) 출신으로 이름이 邱濬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자는 중심(仲深), 호는 경대(瓊臺)이다. 1454년에 관직에 들어서,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 국자제주(國子祭酒)등을 역임했고,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이 책은 중종 13년에 북경을 다녀 온 김안국이 들여왔는데, “『가례의절(家禮儀節)』은 명나라 대유(大儒) 구준(丘濬)이 산정(刪定)한 것입니다. 문의(文義)가 빠지고 소략한 것을 보완하여 구비하였으니 곧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우익(羽翼)인데, 또한 인쇄 반포하여 사람들이 강론하여 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³⁰⁾라고 왕에게 진언하였다. 『구암집』의 행장에 『가례의절(家

29) 1515년(중종 10)~미상.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기초(起初), 서초(恕初), 호는 귀봉(龜峰), 조부는 김언묵(金彦默)이며 아버지는 김석(金錫)이다. 1546년(명종 1) 병오(丙午)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 4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명종 조에 헌납(獻納)으로 보우(普雨)를 죽이기를 청하는 상소를 하였다. 또 을사사화에 연좌되어 벼슬을 빼앗겼다. 저서로 『월곶첨사(月串僉事)』가 있다(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인용 2011. 2. 7]).

禮儀節』로 수록된 책인데, 『문공가례의절』이라는 서명으로 검색되었다. 구암이 청주목사로 재임 중에 간행하였다. 구암이 간행하여 보급한 서적 중 간행연대가 가장 이른 책이다. 도산서원에도 『가례의절』을 소장하고 있는데, 청주목사였던 유중영(柳仲郢)이 가져온 기록³¹⁾이 있다.

2) 『擊壤集』

擊壤集 : 伊川擊壤集 / 邵雍(宋) 撰. -- 木板本. -- [淸州] : 李楨, [壬亂以前]刻(後刷)
16卷3冊(缺佚) :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8.1 × 12 cm, 有界, 10行21字 小字雙行, 黑口,
下向黑(搨花 紋)魚尾 ; 28.3 × 16.3 cm
<성균관대학교 도서관(D03C-0140)>

『격양집』 20권은 송(宋)의 성리학자인 소옹(邵雍 : 1011-1077)의 시집이다. 『격양집』은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이라고도 한다. 소옹은 죽은 후 강절(康節)이란 시호가 추증되었다. 이 시집은 소옹이 자편(自編)하였고 시대순으로 엮었다. 38세(1049년)에 쓴 ‘관기대음(觀碁大吟)’을 시작으로 죽은 해인 66세(1077년)에 지은 ‘기양현(寄楊軒)’이 수록되어 있다.³²⁾ 그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힘썼는데, 그의 작품에는 당대(唐代)의 선승(禪僧)인 한산(寒山, 680?-793?)의 시풍(詩風)을 느끼게 하는 철학시(哲學詩)가 많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다.³³⁾

『격양집』은 집부 별집류에 속하는 책으로, 『고사촬요』(선조 1년본과 18년본)의 청주조에 수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격양집』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청주뿐이다. 고려대, 연세대, 계명대, 성균관대에서 격양집을 소장하고 있으나, 성균관대 소장본만이 임란이전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³⁴⁾ 『구암집』의 행장에 나타난 사실과 『고사촬요』의 기록으로 유추한다면, 『격양집』은 이정이 청주목사로 재임할 때에 간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도산서원에도 소장하고 있는데, 호서감사(湖西監司)였던 구봉령(具鳳齡)이 보낸 기록이 있다.³⁵⁾

3) 『延平問答』(『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延平李先生答問後錄』)

延平李先生答問後錄 / 朱熹(宋) 編. -- 木板本. -- 淸州牧 : 李楨, 明宗 9(1554)年

30) 『中宗實錄』 34卷, 13年 11月 22日(戊午)條

31) 배현숙, “退溪 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p.156.

32)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40, 別集類(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pp.1-172.

33) 『격양집』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2. 5].

34) 김치우, 고사촬요(攷事撮要) 책판목록(冊板目錄)과 그 수록 간본 연구(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7), p.387.

35) 배현숙, 전계서, p.156.

2卷1册 : 四周雙邊 半郭 18.7 × 13.3 cm, 有界, 9行16字,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表題 : 延平答問後錄

刊記 : 嘉靖甲寅(1554)冬 淸州牧開刊

跋 : 正德癸酉(1513)歲春正月吉 李習識. 嘉靖三十三年歲次甲寅(1554)秋九月既望 李滉謹跋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이 책은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에 속하는 책으로, 『연평이선생제자답문(延平李先生師弟子答問)』, 『연평이선생답문후록(延平李先生答問後錄)』과 동일한 서명이며, 주희(朱熹)가 편찬하고 명(明)나라 주목(周木)이 교정(校正)하였는데, 현재 연세대 도서관과 전남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2권1책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에는 『연평이선생사제자답문』과 『연평이선생답문후록』이 수록되고, 하권에는 『연평답문보록(延平答問補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주희가 스승 연평(延平) 이통(李侗 : 1093-1163)과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통의 자는 원중(愿中)이고, 남검주(南劍州) 검포(劍浦)(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출신이다. 연평(延平)에서 살았기 때문에 흔히 연평선생으로 불린다. 그는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24세의 주희가 동안주부(同安主簿)로 부임하는 도중에 연평선생을 만나 수학하게 되었다. 선학(禪學)에 경도된 주희를 도학(道學)의 전통으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도통(道統)'의 전승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내용은 정축년(1157) 6월 26일 편지부터 연평선생이 죽기 전 해인 임오년(1162) 7월28일까지 5년간의 문답을 시간의 순서대로 주희가 편집하였다. 서술방식은 대부분 "(연월일)書云" 또는 "問 ~ 先生曰"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연평이선생답문후록』은 주희의 문인들이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연평과 관련된 부분을 채록하였으며, 끝부분에는 제문과 행장이 있다. 또한 주목(周木)이 편집한 『연평답문보록』은 『주자어류』, 『성리대전』, 『송사』 등에서 연평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놓은 것이다.³⁶⁾

이 책은 우리나라에 김안국에 의해 『가례의절』, 『이정수언』 등과 함께 전래되었다.³⁷⁾ 1554년 가을에 지은 발문에서 퇴계는 구암이 청주목사로 재임시에 간행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⁸⁾ 간기에서도 보이듯이 명종 9(1554)년 겨울에 청주목에서 간행되었다. 도산서원에는 『延平答問』 7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간기가 명시된 것은 2종이 있다.³⁹⁾ 두 가지의 간기는 '嘉靖丙寅(1554)冬淸州牧開刊'과 '嘉靖甲寅(1566)春順天府開刊'인데, 전자는 구암이 청주목사로 재임할 때에 간

36) 『文淵閣四庫全書』, 子部, 4, 儒家類(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pp.643-674. ; 임부연, 『연평답문』해제 참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2. 10].

37) 『中宗實錄』, 34卷, 13年 11月 22日(戊午)條.

38) 『연평답문』, '跋文'.

39) 배현숙, 전게서, p.157.

행한 것이고, 후자는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에 간행한 것이다. 『고사촬요』(선조 1년본, 선조 18년본)의 책판목록에는 순천조에서만 『延平答問』이 수록되어 있다. 즉, 청주목에서 간행했던 책판을 순천으로 옮겨와 중간하고, 그 책판을 순천부에서 소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4) 『文公朱先生感興詩』

文公朱先生感興詩 / 朱熹(宋) 撰 : 李楨 校. -- 木板本. -- 清州牧 : 李楨, 明宗 9(1554)年 跋
1册(34張) : 四周單邊, 半葉匡郭 : 23.5 × 16.3 cm, 有界, 11行 21字 版心 大黑口, 上下黑魚尾
31 × 20 cm

表紙書名 : 感興詩

跋 : 嘉靖三十二年(1553) … 金忠甲, 嘉靖甲寅(1554) … 李楨

刊記 : 嘉靖癸丑(1553)冬清州牧開刊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古貴 895.11-J868)〉

주희의 감흥시와 기타 시를 모아놓은 시집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희의 감흥시와 이에 대한 채모(蔡模)의 주해와 그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에 증록(增錄)으로 '擬古八', '奉同張敬夫城南二十詠' 등 50여 수가 수록되어 있고, 원(元)나라 학자 유개(劉槩) 및 김충갑(金忠甲), 퇴계, 구암의 발문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권말(卷末)에는 '嘉靖癸丑(1553)冬 清州牧開刊'이라는 간기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청흥도관찰사 이몽량(李夢亮), 도사 양희(梁喜), 청주목사 이정(李楨), 도위 한혜(韓蕙), 교수 오전(吳詮) 및 서사교정공생 송세훈(宋世渾), 각수(刻手) 등 간행에 참여한 인물이 실려 있다.

규장각 소장본(古貴 895.11-J868)에는 김충갑의 발문과 이정의 발문이 2가지 수록되어 있어서 간행경위를 알 수 있다. 1553년에 쓴 김충갑의 발문에 따르면, 본래 감흥시의 분량이 적어서 〈擬古八首〉, 〈雲谷雜詩十二首〉 등을 뽑아서 추가하였다고 한다. 1554년에 쓴 이정의 발문에 따르면, 처음에 주자본(鑄字本) 『감흥시주해(感興詩註解)』의 간행을 마치고, 〈擬古八首〉, 〈雲谷雜詩〉, 〈武夷雜詠〉, 〈棹歌十絕〉을 첨가하고, 또 〈濯淸一絕〉을 魚艇詩와 棹歌詩에서 뽑아 1편을 만들었다. 이후 퇴계선생의 지교(指教)에 따라 〈城南二十詠〉, 〈百丈山六詠〉, 〈雲谷二十六詠〉 및 〈宿休庵一律〉을 〈擬古第八章〉과 〈雲谷第一詠〉 사이에 보입(補入)하고, 또 〈洞天一絕〉을 〈魚艇〉 〈棹歌〉 양시(兩詩) 사이에 보충하여 판각하고, 〈濯淸一絕〉을 새겨서 각각 종류대로 편집하였다. 『감흥시』(주자본) 뒤의 卜春亭의 鑄字跋은 삭제하였다. 1555년(명종 10)의 李楨의 발문에 따르면, 예전에 도가(權歌)주해의 사본(寫本)을 얻었지만 오자(誤字)와 낙자(落字)가 있어서 선본

(善本)을 얻지 못하여 안타까웠는데 신영천(申靈川)이 손수 필사한 선본을 노자옹(盧子膺)이 베풀어 보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에 전에 보던 것과 비교하니 오자 34개, 낙자 70개를 보완하였다고 한다.⁴⁰⁾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경주조에도 『주자시집』으로 수록되어 있고 『구암집』의 '행장'에 『주자시집』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현존본을 조사하니 구암이 발문을 쓴 『문공주선생감흥시』를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문공주선생감흥시』는 『주자시집』과 동일서명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변계량의 발문이 들어 있는 경자자본(庚子字本)이 현존한다.⁴¹⁾ 청주목에서 간행된 이 책은 구암에 의해서 경자자본을 복각하고, 증보(增補)하였다.

5) 『醫閭集』

醫閭先生集 / 賀欽(明) 著 ; 鄭曉(明) 參定 ; 唐順之(明) 重校. -- 木板本. -- 晉州 : 李楨, 明宗16(1561) 年 跋

9卷3冊 : 四周單邊 半郭 19.6 × 14.9 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黑魚尾

版心題 : 醫閭

手書刻序 : 嘉靖己丑(1529)八月 經筵兼提督團營軍務李承勛序

手書刻跋 : 嘉靖辛酉(1561)季冬 慶州府尹...李楨敬跋

〈연세대학교 소장본〉

이 책은 명나라 성리학자 하흠(賀欽)(1437-1510)의 언행록과 詩文을 엮은 문집이다. 저자의 자는 극공(克恭), 호는 의려(醫閭) 또는 의려산인(醫閭山人), 의주위인(義州衛人)이다. 그의 학문은 대체로 널리 섭렵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사서(四書) 및 경서(經書)와 『소학(小學)』을 중심으로 몸소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일찍이 그가 “학문의 요체는 고원(高遠)한 데에 있지 않고, 경(敬) 공부를 위주로 하여 놓친 마음[放心]을 수습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려집』에 수록된 그의 언행 모두가 현실 생활에 꿰뚫히고 진실되며 주소(奏疏) 역시 치리(治理)에 통달하여 바로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²⁾

당시 경주부윤이었던 이정에 의해서 1561년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었다. 『고사촬요』 선조 18년본에 진주조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암이 경주부윤시절 진주에 판각을 의뢰해서 간행

40) 이동인, 『文公朱先生感興詩』해제,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1. 10].

41) 현재 화봉갤러리(여승구)에서 소장하고 있다.

42) 『文淵閣四庫全書』, 集部, 193, 別集類(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의 발문(跋文)⁴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금년 봄에 도사(都事) 조희문(趙希文)이 서울에서 경주에 오자 나의 친구 허엽(許曄)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醫閻先生文集』 약간권을 상재(上梓)하여 광포(廣布)하고자 하는데 전각(鐫刻)비용을 아끼지말기 바란다”라고 하여 이정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뜻에 감동하였다. 즉시 그 문집을 비롯하여 『공자통기』, 『이정수언』, 『이락연원』, 『대당문감』, 『황조명신언행록』 등을 현재 방백인 남궁침에게 품고(稟告)하여 대관들에게 나누어 이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 문집은 진양(진주) 목사 김홍이 그 일을 감독하여 수개월이 안 되어 완결되었다.

이 발문의 내용으로 보아 『공자통기』, 『이정수언』, 『이락연원록속집』, 『당감(東萊先生音註唐鑑)』, 『황명명신언행록』은 이정이 경주부윤으로 재임시에 함께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醫閻先生集』은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 일본의 봉좌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6) 『學庸章句指南』(『庸學章句指南』)

學庸章句指南 / 胡謐(明) 編. -- 木板本. -- 慶州 : 李楨, 明宗.17(1562)年 跋
3卷1冊 : 四周單邊 半郭 21.4 × 17.5 cm, 12行20字 註雙行, 內向黑魚尾 ; 27.5 × 19.7 cm

版心題 : 大學指南, 中庸指南, 中庸詳說

表題 : 學庸指南

跋 : 嘉靖壬戌(1562)...李楨

序 : 成化辛卯(1471)...胡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B11238-60>

이 책은 명나라의 호밀(胡謐)이 장문질(蔣文質)이 지은 『대학통지(大學通旨)』와 『중용장차연속(中庸章次連續)』, 유청(劉淸)의 『중용장구상설(中庸章句詳說)』을 합하여 편집한 『대학』과 『중용』의 주석서로서, 목판본 3권 1책이다. 호밀은 이들을 합하여 『학용지남(學庸指南)』이라고 명명하였다.⁴⁴⁾ 왕서(王瑞)의 대학통지후서(大學通旨後序)에 따르면 대학의 주석서는 여럿

43) “今年春 都事趙希文 自洛抵慶 囑之於吾友許大輝曄之言曰 醫閻先生文集 凡若干卷 惟楔梓廣布 是望須毋惜鐫費 楨聞其言而感其意 卽將是集及孔子通記·二程粹言·伊洛淵源·大唐文鑑·皇朝名臣言行錄等書 稟告于今方伯南宮公沈 分屬大官而監督之 是集則晉陽牧伯金候泓實董其役 不數月功已告完.”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 지식산업사, 2003), p.295.

44) 『구암집』 별집 권1, '學庸章句指南跋'.

있지만 장문질의 해설이 가장 정순확당(精純確當)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암의 발문에 의하면, 당시 목사였던 김홍으로부터 주자본(鑄字本)을 얻어 계림(경주)에서 판각하였다.⁴⁵⁾

7) 『二程粹言』(傳道粹言, 粹言)

二程先生傳道粹言 / 楊時(宋) 訂定 ; 張栻(宋) 編次. -- 木板本. -- [陝川] : 李楨, 明宗 17(1562)年 跋

10卷2冊 : 四周單邊 半郭 19.7 × 14.1 cm, 10行22字 註雙行, 黑口, 內向黑 / 花紋魚尾 : 31.4 × 19.1 cm

表題 : 粹言

原序 : 乾道丙戌(1166)正月十有八日南軒張栻序.

原重刊序 : 正德八年歲在癸酉(1513)春二月乙卯後豐城楊廉序

跋 : 嘉靖壬戌(1562)...暮春晦眞性李滉謹跋.

<일본 봉좌문고 소장본 164-22>

송나라 양시(楊時)가 이정선생(二程先生 : 程顥, 程頤)의 사설(師說) 중에서 채록한 것을 장식(張栻)이 편차하여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논도(論道)편, 논학(論學)편, 논서(論書)편, 논정(論政)편, 논사(論事)편, 천지(天地)편, 성현(聖賢)편, 군신(君臣)편, 심성(心性)편, 인물(人物)편 등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시는 자는 중립(中立), 장락인(將樂人)이고, 국자제주(國子祭酒), 공부시랑겸시독(工部侍郎兼侍讀) 등을 역임하고 시호는 문정(文靖)을 추증받았다.⁴⁶⁾

이 책은 『가례의절』, 『연평답문』과 함께 김안국에 의해 중종 13년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⁴⁷⁾ 1562년에 쓴 퇴계의 발문에, “1560년에 나의 벗 이강이(李剛而 : 구암) · 윤동도 · 송인 등이 이 책을 내놓으면서 간행을 부탁하였다. 그 책을 살펴보니 완결(刊缺)이 많아 이군과 더불어 교정하여, 다른 책들과 함께 감사 남궁침에게 청하여 인근 군에 분각하게 하였다”⁴⁸⁾라고 간행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구암과 퇴계가 함께 교정하고 퇴계가 발문을 써서 간행하였고, 여러 책을 함께 간행하

45) 『구암집』 별집 권1. ‘學庸章句指南跋’, ‘今得鑄字本於金牧使滉, 試刻之于鷄林’.

46) 『文淵閣四庫全書』, 子部 儒家類, 4(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pp.355-356.

47) 『中宗實錄』, 34권, 13년(1518) 11월 22일(戊午)條.

48) 『二程粹言』 ‘跋文’, “嘉靖庚申歲(1560) 吾友泗川李君剛而尹翁東都礪城尉宋公寅出是本 囑以刊行 願其爲書 頗多刊缺 李君 不辱與滉 往復校訂 乃並與他書 而請于監司南宮忱 令與秀君 分刻焉 至是功告訖.”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 지식산업사, 2003), p.146.

였기 때문에 감사에게 칭하여 몇 군데에서 나누어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사촬요』(선조 18년본) 합천조에 유일하게 『이정수언』이 수록되어 있다. 구암이 경주부윤으로 재임할 때에, 합천군에 의뢰하여 판각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8) 『孔子通紀』

孔子通紀. 乾,坤(卷1-8) / 潘府(明) 校著. -- 木板本. -- 慶州府, 李楨, 明宗 17(1562)年
8卷2册 : 四周雙邊 半郭 23.0 × 17.8 cm, 有界, 半葉11行21字, 大黑口 內向黑魚尾 ; 31.4 × 21.9 cm

版心題 : 孔子通紀

表題 : 孔子通紀

嘉靖壬戌(1562)...龜巖 李楨 謹識

孔子通紀總解 : 弘治癸亥(1503)...虞潘府敬書

卷末刊記 : 慶州府開刊(陰刻).

跋 : 弘治甲子(1504)...吉水羅僑 謹識

序 : 洪治14年(1501)...西蜀劉瑞謹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소장 D152.212-우41 v.1 / D152.212-우42 v.2>

명(明)의 학자이며 관료였던 반부(潘府)가 편찬한 공자에 대한 기록물이다. 반부는 자는 공수(孔修), 상우인(上虞人)이다. 지현(知縣), 태상소경(太常少卿) 등을 역임하였다. 민간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군민이병칠사(軍民利病七事)와 구시십요(救時十要) 등을 진언하였다.⁴⁹⁾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소장본의 권말에는 경주부에서 개간(開刊)했다는 간기가 있으며, 구암이 1562년에 쓴 지기(識記)가 있어서, 경주부윤으로 재임할 때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에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의성(義城)조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의성에서 판각하여 경주부에서 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 『唐鑑』(東萊先生音註唐鑑)

東萊先生音註唐鑑/ 范祖禹(宋) 撰 ; 呂祖謙(宋) 註. ; 李楨 校. -- 木板本. -- 慶州府 : 李楨,

49) 노관범, 『공자통기』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2. 10].

明宗 17(1562)年

24卷5册 : 四周單邊 半郭 23.4 × 17.0 cm, 有界, 10行17字 小字雙行, 上下大黑口, 內向黑 魚尾
; 33.0 × 22.8 cm

表紙, 版心, 卷頭書名 版心書名 : 唐鑑

序 : 大明弘治十年歲次丁巳(1497)夏六月既望…呂幢序, … 昆陵白昂序

識 : 嘉靖壬戌(1562)秋八月龜巖李楨謹識

刊記 : 嘉靖壬戌(1562)慶州府刊板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貴 207B)〉

이 책은 송(宋)나라 범조우(范祖禹)가 당나라 고조(高祖) 원년(618)으로부터 소종(昭宗)(907)에 이르기까지의 290년 역사를 논평한 사서(史書)이다. 권두에 명(明) 홍치(弘治) 10(1497)년에 白昂이 쓴 중간서문(重刊序文)이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이 책이 군왕의 현부(賢否), 신하의 사정(邪正), 사업의 득실을 모두 의리(義理)와 지공무사(至公無私)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논평한 책이다. 여조겸(呂祖謙)이 쓴 중간서문에는 원래 범씨가 12권으로 지은 것을 여기에 여조겸이 음주(音註)하고 24권으로 정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 범조우(1041-1098)의 자는 순부(淳夫)이고 몽득(夢得)이다. 그는 『자치통감』의 편찬에도 관여하였는데, 당(唐)나라 및 5대를 기술하였다. 음주를 단 여조겸은 남송의 유학자(1137-1181)로, 자는 백공(伯恭), 호는 동래(東萊)이다.

도산서원에는 24권5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嘉靖壬戌(1562)慶州府刊板”이라는 간기⁵⁰⁾가 있고 고려대 소장본에는 구암이 쓴 지기(識記)와 간기가 있다. 구암이 교정하고 경주부윤으로 재임할 때에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는 갑인자본(1513년 刊, 만송 貴 207) 『당감』이 소장되어 있는데, 판식이 본 책과 같다. 구암은 갑인자본을 복각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10) 『伊洛淵源續錄』

伊洛淵源續錄/ 謝鐸(明) 編. -- 木板本. -- [永川] : 李楨, 明宗17(1562)年 跋

14卷, 續6卷, 合5册 : 四周單邊 半郭 21.2 × 17.1 cm, 有界, 11行21字,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 32.4 × 21.6 cm

版心題 : 續伊洛

前序 : 成化庚子(1480)…謝鐸謹識于長安西館

50) 배현숙, 전계서, p.156.

後序 : 弘治丙辰(1496)…鐸再識于方巖書院

跋 : 嘉靖己丑(1529)…臨海高貴亨謹書, 嘉靖壬戌(1562)…眞城李滉謹跋

裡紙記 : 嘉靖丙寅(1566)夏嶺南監司姜相國尙之所贈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고) 920.952사탁이 -1)>

이 책은 사부(史部) 전기류(傳記類)에 속하며, 주자(周子 : 주돈이) 이하 정자(程子)의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송의 도학자들의 전기이다. 내용은 염계(濂溪)선생, 명도(明道)선생, 이천(伊川)선생, 강절(康節)선생, 횡거(橫渠)선생... 등 46인의 행장, 제문, 묘갈명, 유사(遺事)... 들을 기록하여 송대 도학자와 문인들의 면모와 도학의 전승을 밝혀놓았다.⁵¹⁾ 주희가 찬한 『이락연원록』 14권을 명대의 양렴(楊廉)이 증보한 『이락연원록신증(伊洛淵源錄新增)』 14권과 사탁(謝鐸)이 지은 『이락연원속론(伊洛淵源續論)』 6권을 합하여 고귀형(高貴亨)이 간행한 책을 조선에서 구암이 간행하였다. 1562년에 퇴계가 발문을 썼는데, 구암이 경주부윤으로 재임할 때였다.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영천(永川)조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구암이 영천군에 판각을 의뢰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락연원속록』 6권은 1480년(成化 16년 庚子) 사탁(謝鐸)이 자서(自序)를 첨부하여 간행했다. 사탁에 의하면 주희의 『이락연원록』은 제현(諸賢)의 학문이 모두 언행일치(言行一致), 체용일원(體用一源)한 점을 잘 알려주어 주희 사후에도 육경사서(六經四書)에 산견하는 제현의 유언(遺言), 제론(緒論)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접하여 알 수 있지만, 그 학문의 사우(師友)간의 전수와 출처이력(出處履歷)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희의 전체대용(全體大用)의 학(學)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속록(續錄)』을 편찬하게 되었다고 한다.⁵²⁾

11) 『居業錄要語』

居業錄要語 / 胡居仁(明) 撰 : 張吉 編 -- 木板本. -- 順天 : 李楨, 明宗19年(1564)年
4卷1冊: 四周單邊 半郭 21.3 × 16.3 cm, 有界, 10行18字, 上下大黑口, 內向混合魚尾; 30.2 × 20.6 cm.

序 : 正德丁卯(1507)春三月望日餘干張吉序

51) 『文淵閣四庫全書』, 史部, 206, 傳記類(臺灣 : 臺灣商務印書館, 1988), p.411.

52) 『이락연원록』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2. 16].

跋 : 正德己卯(1519)春正月穀旦臨川楊廷用跋

識 : 甲子(1564)季夏李楨謹識

〈전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OC3A2호13기)〉

『居業錄要語』는 『거업록』의 요체만을 뽑은 책이다. 『거업록』은 원래 명나라 호거인(胡居仁)이 강학(講學)한 내용을 어록으로 편집해서, 홍치갑자(弘治甲子 : 1504)년에 호거인의 문인인 여우(余祐)가 서문을 써서 8권1책으로 간행한 책이다. 호거인(1434-1484)은 여간(餘干)사람으로 자는 숙심(叔沁), 호는 경재(敬齋)이다. 『거업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성리학과 학문에 대한 생각을 ‘심성(心性)’, ‘학문(學問)’, ‘성현(聖賢)’, ‘제왕(帝王)’, ‘고금(古今)’, ‘천지(天地)’, ‘노불(老佛)’, ‘경전(經傳)’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장길(張吉)이 요어(要語)만을 뽑아 4권1책으로 편집한 책이 『거업록요어』이다. 구암이 조선에서 간행한 책은 『거업록요어』이다. ‘正德丁卯(1507)春三月望日餘干張吉序’라는 서문과 ‘正德己卯(1519)春正月穀旦臨川楊廷用跋’이라는 발문이 있고, ‘甲子(1564)季夏李楨謹識’이 기록되어 있다. 『고사촬요』(선조 18년본)의 순천조에 수록되어 있고, 순천부사로 재임하였던 구암이 1564년에 쓴 지기(識記)가 있어서 1564년 순천부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程氏遺書分類』(『程氏遺書』)

程氏遺書分類 / 程顥(宋) ; 程頤(宋) 共著 ; 楊廉(明) 編 ; 李楨 校. -- 木板本. --

順天 : 李楨, 明宗19(1564)年

30卷6冊(零本) : 四周單邊, 半郭 22.0 × 16.4 cm, 有界, 半葉10行19字, 內向混入魚尾

表題 : 二程遺書 序: 豐城楊廉(明)自序

刊記 : 嘉靖甲子(1564)春 順天府 開刊

〈옥산서원 소장본〉

김치우의 연구⁵³⁾에 따르면, 이 책은 현재 옥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嘉靖甲子(1564)春 順天府 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1564년에 순천부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사촬요』의 순천조에 수록된 『程氏遺書』는 이 책을 가리킨다. 『程氏遺書分類』는 구암이 교정하여 간행하였는데, 이정은 이 당시 순천부사로 재임 중이었다.

『정씨유서분류』는 『정씨유서』 또는 『유서』와 동일서명이며, 『이정전서(二程全書)』의 일부분

53) 김치우, 전게서, p.365.

이다.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에 속하는 이 책은 이정(二程)의 제자들이 기록한 이정선생의 어록에서 주희가 편집하였다.

13) 『程氏外書分類』

程氏外書分類 / 程顥(宋) ; 程頤(宋) 共著 ; 楊廉(明) 編 ; 李楨 校. -- 木板本. --

順天 : 李楨, 明宗19(1564)年

2册(全) : 四周單邊, 半郭 22.1 × 16.3 cm, 有界, 半葉10行19字, 內向混入魚尾, 32.0 × 21.0 cm

楊廉自序

刊記 : 嘉靖甲子(1564)春 順天府 開刊

<한국국학진흥원(안동) 도서관 소장본>

『정씨외서분류』는 『정씨유서분류』와 마찬가지로 『이정전서(二程全書)』에 들어 있는 것으로 『외서(外書)』로 구암집 행장에는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에 2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1564년에 간행된 것으로 『정씨유서분류』와 함께 순천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이정(二程)의 문인들이 기록한 어록으로 주희가 편집하였다. 조목 아래에 “淳”이라고 주를 단 것은 정호의 말이고, “正”이라고 주를 단 것은 정이의 말이다. 그 성격은 『유서(遺書)』와 서로 같지만 구분하여 『외서(外書)』라고 편집한 것은, 주희에 따르면 결코 ‘선생의 말’에 있어 ‘精粗’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조잡하게 모았거나 혹은 그 출처를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유서(遺書)』를 볼 때와는 달리 학자들이 더욱 정밀하게 가리고 깊이 살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⁵⁴⁾

14) 『濂洛風雅詩』(濂洛風雅)

濂洛風雅 / 金履祥(宋) ; 唐良瑞(元) 編. -- 木板本. -- 順天府 : 李楨, 明宗20(1565)年.

1册(零本 : 卷4-7) : 四周單邊, 半郭 20.8 × 15.5 cm, 有界, 11行20字, 內向黑魚尾 ; 32.5 × 19.5 cm.

刊記 : 嘉靖乙丑(1565)春 順天府 開刊

<계명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이귀)812.1김이상여 -2)>

54) 이현선, 『이정전서』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2. 15].

『염락풍아시』는 김이상(金履祥)(宋)과 당량서(唐良瑞)(元)이 엮은 책으로 염계(濂溪)의 주돈이, 낙양(洛陽)의 정호와 정이를 비롯하여 송나라 성리학자 48명의 시를 모았다. 집부 총집류에 속하는 책이다. ‘염락풍’이라는 용어는 송대 염계(濂溪)에 있던 주돈이(朱敦頤)와 낙양(洛陽)에 있던 정호·정이, 관중(關中)에 있던 장재(張載)와 주희 등의 성리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적 세계관을 시로 읊으면서 생겨났다.⁵⁵⁾ ‘嘉靖乙丑(1565)春 順天府 開刊’라는 간기가 있어서 1565년에 순천부(順天府)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구암이 순천부사로 재임 중이었고, 행장의 내용과도 일치하여 구암이 간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염락풍아시』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 여러 종의 판본이 산재해 있다.

15) 『三韓詩龜鑑』(三韓龜鑑)

三韓詩龜鑑 / 崔瀼(高麗) 批點. ; 趙云佐(高麗) 精選. --木板本. -- 順天府 : 李楨, 明宗 21(1566)年

3卷 1冊(40張) : 四周雙邊 半郭 23.5 × 17.6 cm, 有界, 8行14字, 上黑口, 下向黑魚尾 ; 31.5 × 20.6 cm

刊記 嘉靖丙寅(1566)冬順天府重刊 明宗二十一年(1566)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만송 貴 363)〉

고려 말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최해(崔瀼, 1287-1340)가 비점(批點)을 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문인의 시를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문신 조운홀(趙云佐, 1302-1404)이 정선하여 편찬한 시선집(詩選集)이다. 집부(集部) 총집류(總集類)에 속하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시선집이다. 3권1책으로 되어 있고, 권상(卷上)에는 오언시(五言詩) 89수, 권중(卷中)에는 칠언시(七言詩) 31수, 권하(卷下)에는 칠언고시(七言古詩) 23수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일본국회도서관 상야분관(上野分館)에 소장되어 있다. “嘉靖丙寅(1566)冬順天府重刊”라는 간기가 있어서 1566년에 순천부(順天府)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구암이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에 간행한 책이다.

16) 설문청(薛文淸) 『독서록(讀書錄)』

간행연대와 간행미상이지만 『구암집』의 행장에 나타나는 도서로 설문청의 『독서록』이 있다. 현

55) 변중현, “고려후기 염락풍시의 성격.” 대동한문학, 제15집(2001), p.25.

존본을 조사한 결과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서 뚜렷한 간기가 있는 것은 '萬曆甲戌(1574)春川谷書院(星州)刊'이라고 적힌 성주 천곡서원본뿐이다. 『고사촬요(선조 18년본)』에는 성주와 합천에 목판이 소장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구암이 간행을 주도하였던 설문청(薛文淸) 『독서록(讀書錄)』은 경주부윤시절에 합천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은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에 속하며, 명나라 성리학자 설선(薛瑄, 1389-1464)이 독서하고 사색한 것을 모아 지은 『독서록(讀書錄)』을 명(明)의 오정거(吳廷舉)가 읽으면서 중요한 구절만을 발췌하여 時習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한 책이다. 오정거는 『독서록』을 '天理·人事'의 핵심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학지론(下學之論)이 많고, 일언일구(一言一句)가 모두 후학이 경계삼을 만하여 濼洛關閩의 책과 같은 대열에 속한다고 평가하였다.⁵⁶⁾ 우리나라에서는 『독서록(讀書錄)』, 『설문청공독서록(薛文淸公讀書錄)』, 『독서록요어(讀書錄要語)』, 『설씨독서록(薛氏讀書錄)』 등의 서명으로 간행되었다.

IV. 刊行된 圖書의 성격

현존본을 조사한 결과, 구암이 생전에 편찬하거나 간행을 주도한 도서는 20종으로 <표 1>과 같이 나타났다(표는 간행 순서로 작성하였다). 『구암집』에 나타난 16종의 도서와 현존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구암집에 나타난 『황명명신언행록』과 『이학록』은 현존본에서 『황명명신언행록』으로 합본된 상태이고, 설문청의 『독서록』은 현존본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암집』에는 언급되지 않은 『삼한시귀감』과 『염락풍아』 2종이 순천부에서 간행되었음이 밝혀졌다.

간행된 도서를 주제별, 간행처, 간행시기, 판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구암의 도서간행

구암이 편찬하거나 간행을 주도한 서적은 모두 20종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서술한 각 도서의 서지사항에 의거하면, 구암이 편찬한 서적은 『황명명신언행록』, 『성리유편』, 『경현록』, 『수서시』 4종이고, 교정한 서적은 『문공주선생감홍시』, 『당감』, 『정씨유서분류』, 『정씨외서분류』 4종이다. 『연평문답』, 『문공가례의절』, 『격양집』, 『독서록』, 『의려집』, 『학용장구지남』, 『이정수언』, 『공자통기』, 『이락연원속록』, 『거업록』, 『염락풍아시』, 『삼한시귀감』 12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수서시』는 편찬하였으나 간행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56) 이동인, 『독서록』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2. 5].

〈표 1〉 구암 이정이 편찬하거나 간행한 도서의 목록

書名	編著者	刊行年	刊行處	主題
延平問答	朱熹(宋) 編	1554	淸州	子部 儒家類
文公家禮儀節	朱熹(宋) 撰 ; 丘濬(明) 輯	1555	淸州	經部 禮類
擊壤集	邵雍(宋) 撰	1552-1556 (淸주목사시기)	[淸州]	集部 別集類
文公朱先生感興詩	朱熹(宋) 撰 ; 蔡模(明) 註 ; 李楨 校	1555 跋	淸州	集部 別集類
讀書錄	薛瑄 著	1560-1563 (淸주부윤시기)	[陝川]	子部 儒家類
醫閣集	賀欽(明) 著 ; 鄭曉(明) 參定 ; 唐順之(明) 重校	1561 跋	晉州	集部 別集類
學庸章句指南	胡謚 編	1562 跋	慶州	經部 四書類
二程粹言	程顥(宋) ; 程頤(宋) ; 楊時(宋) 訂定	1562 跋	[陝川]	子部 儒家類
孔子通記	潘府 校著	1562	慶州府	子部 儒家類
唐鑑	范祖禹(宋) 撰 ; 呂祖謙(宋) 註 ; 李楨 校	1562	慶州府	史部 抄史類
皇明名臣言行錄	楊廉(明) 撰 ; 李楨 編	1562 跋	慶州	子部 儒家類
伊洛淵源續錄	謝鏗(明) 編	1562 跋	[永川]	史部 傳記類
居業錄(居業錄要語)	胡居仁(明) 撰 ; 張吉 編	1564	順天府	子部 儒家類
程氏遺書分類	程顥(宋) ; 程頤(宋) ; 朱熹(宋) 編 ; 楊廉(明) 編 ; 李楨 校	1564	順天府	子部 儒家類
程氏外書分類	程顥(宋) ; 程頤(宋) ; 朱熹(宋) 編 ; 楊廉(明) 編 ; 李楨 校	1564	順天府	子部 儒家類
性理遺編	李楨 編	1564 跋	順天	子部 儒家類
景賢錄	李楨 編	1565	順天	史部 傳記類
廉洛風雅詩	金履祥(宋) ; 唐良瑞(元) 編	1565	順天府	集部 總集類
三韓詩龜鑑	崔瀼(高麗) 批點 ; 趙云佐(高麗) 精選	1566	順天府	集部 總集類
壽瑞詩	姜孟卿 等著 ; 李楨 編	未詳	未詳	集部 總集類

구암은 지인들로부터 구한 서적을 읽은 후에 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 대부분 퇴계와 의논하여 간행한 사실을 3장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퇴계는 구암이 『문공주선생감흥시』의 편집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때에 자세히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면서, “옛날에 장남헌(張南軒)이 간행한 『정자집(程子集)』을 감상해볼 때에 온당치 못한 곳이 있음을 보고 주자(朱子)께서 고칠 것을 힘써 청하였고 여동래(呂東萊)가 지은 백록동서원 기문에 미온한 곳이 있음을 주자가 또 하나 하나 지적해 내어 고치기를 청하였으니...”⁵⁷⁾라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퇴계와 구암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도서관행을 공동작업하였던 것이다.

도서관행에 도움을 준 이는 퇴계 이황이외에도 감사 남궁침, 김충감, 진주목사였던 김홍 등이었다. 남궁침은 구암이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에 경상감사였으며,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에는 전라도관찰사였다. 남궁침은 『정씨유서분류』, 『정씨외서분류』, 『성리유편』, 『당감』, 『공자통기』, 『이정수언』, 『이락연원』, 『황조명신언행록』 등의 서적을 각 군에 분담하여 판각하도록 도와주었다. 김홍은

57) 『구암집』 제1권, 『退溪先生書』.

진주목사로 있으면서 『의려집』을 편각하였고, 김충갑은 『문공가례의절』과 『문공주선생감흥시』의 발문을 썼다.

2. 주제별 특징

전체 20종의 도서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 9종, 집부(集部) 별집류(別集類) 3종, 집부(集部) 총집류(總集類) 3종, 사부(史部) 전기류(傳記類) 2종, 경부(經部) 사서류(四書類) 1종, 경부(經部) 예류(禮類) 1종, 사부(史部) 초사류(抄史類) 1종으로 나타났다. 자부 유가류에 속한 도서가 9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집부의 별집류와 총집류에 속하는 도서가 각각 3종이다.

기묘사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송대 성리학자들의 저술이 다수 수입되었다. 구암이 간행한 도서의 성격은 모두 성리학에 관련된 도서이고 그 중에서도 송대 염락관민(濂洛關閩)계통의 학자들의 저술이 주를 이룬다. <표 1>에 나타난 편저자를 살펴보면, 주희, 정호, 정이, 소옹, 양시 등은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구준, 양렴, 호거인, 설선, 사탁은 명나라의 성리학자들이다. 이들이 편찬한 도서는 성리학자들의 어록, 사상서, 시집, 전기, 독서록 등으로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지침서들이라 할 수 있다. 구암은 서적이 귀한 지방에서 후학들이 성리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성리학서를 간행하여 보급하였던 것이다.

3. 간행처

<표 1>에 나타난 간행처 중 확실한 것은 15종이고, 불확실하여 추정한 것은 5종이다. 간행처가 확실한 도서만 살펴보면 순천 7종, 경주 4종, 청주 3종, 진주 1종으로, 순천에서 간행한 도서가 가장 많다. 불확실한 도서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순천 7종, 경주 4종, 청주 4종, 합천 2종, 진주 1종, 영천 1종이다. 순천, 청주, 경주는 이정이 지방관으로 재임했던 지역이고, 합천, 진주, 영천은 이정이 경주부윤으로 재임시 편각을 의뢰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간행시기

구암이 도서를 간행한 시기를 살펴보면, 간기가 확실한 도서만으로 볼 때에 1554년부터 1566년 사이이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청주목사 시절과 경주부윤시절, 그리고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이다. 청주목사 재임시에는 『연평답문』, 『문공가례의절』, 『문공주선생감흥시』를 간행하였고, 경주부윤으로 재임시에는 『의려집』, 『학용장구지남』, 『당감』, 『황명명신언행록』 등을 간

행하였고, 순천부사로 재임시에는 『성리유편』, 『거업록』, 『정씨유서분류』, 『정씨외서분류』, 『경현록』, 『염락풍아시』, 『삼한시귀감』을 간행하였다.

구암은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에 성리학관련서적을 간행하여 보급하였고, 마지막 임지인 순천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즉 그의 생애 말년에 집중적으로 도서간행을 하였는데, 순천에서는 도서간행과 함께 경현당을 건립하여 김굉필을 추모하고 그의 유지를 기렸다.

5. 판종

총 20종의 서적 중에서 형태적 특징이 나타난 19종은 모두 목판본이다. 설문청의 『독서록』은 현존본이 없어서 서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독서록』을 제외한 19종은 공통적으로 구암이 생존하며 간행하였으므로 16세기 판본이며, 또한 지방에서 간행된 관판본(官板本)들이다. 조선시대 지방판본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V. 結 論

지금까지 16세기 성리학자이며 문신이었던 구암 이정의 도서 편찬·교정·간행 활동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구암은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도서를 간행하여 보급하는데 힘썼음을 알 수 있다. 구암이 살던 16세기는 조선 중기로 성리학이 뿌리를 내려 학문이 깊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퇴계와 사제지간이 되면서 퇴계의 영향을 받고, 구암 자신이 독서하면서 간행하려는 의지를 가졌으며, 직접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구암은 20종의 도서 편찬·교정·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3종(『皇明名臣言行錄』, 『性理遺編』, 『景賢錄』)의 서적을 편찬·간행하였고, 4종(『文公朱先生感興詩』, 『唐鑑』, 『程氏遺書分類』, 『程氏外書分類』)의 서적을 교정·간행하였으며, 12종(『延平問答』, 『文公家禮儀節』, 『擊壤集』, 『讀書錄』, 『醫問集』, 『學庸章句指南』, 『二程粹言』, 『孔子通記』, 『伊洛淵源續錄』, 『居業錄』, 『廉洛風雅詩』, 『三韓詩龜鑑』)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壽瑞詩』는 편찬하였으나 간행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2) 이황, 남궁침, 김충갑, 김홍 등이 구암의 서적간행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 3) 구암이 간행을 주도한 20종의 서적은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에 속한 도서가 9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수서시』를 제외한 19종은 송대 염락관민계통의 성리학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암은 저명한 성리학자들이 편찬한 양서를 선택하여 성리학 관련도서들을 집중적으로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 4) 서적의 간행처는 순천, 경주, 청주, 진주였으며, 마지막 임지였던 순천에서 간행된 서적이 가장 많았고, 순천, 경주, 청주는 구암이 지방관으로 역임했던 임지이다.
- 5) 서적의 간행시기는 1554년부터 1566년까지로, 청주목사 시절과 경주부윤시절, 그리고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이다.
- 6) 서지사항이 확실한 19종은 모두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16세기 지방관판본의 특징을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1. 原典

- 李楨. 『龜巖集』. 한국문집총간 제33권.
李滉.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제30권.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文淵閣四庫全書』.

2. 單行本

- 許 穆. 국역 미수기언(眉叟記言) 5. '龜巖李先生碣銘.'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5.
기대승. 국역 고봉전서 1. 성백호·이성우 역.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2007.
김치우. 고사촬요(攷事撮要) 책판목록(冊板目錄)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7.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 지식산업사, 2003.

3. 論文

- 배현숙. "退溪 藏書의 集散考."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pp.135-170.
변종현. "고려후기 염락풍시의 성격." 대동한문학, 제15집(2001), pp.25-44.
안현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전 전라도 서적출판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46집(2010), pp.159-198.
李相弼. "16세기 儒學思想의 全開와 南冥의 學問. 南冥學研究." v.3(1993), pp.7-21.
李樹健. "龜巖 李楨의 生涯와 學問 및 '退南'과의 關係." 龜巖思想 學術集(사천문화원, 2005), pp.15-76.
崔英成. "龜巖 李楨의 學問과 朝鮮儒學史上的 貢獻." 龜巖思想 學術集(사천문화원, 2005), pp.147-180.

4. 전자자료

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인용 2011. 2. 1-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1. 2. 1-25].

※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사천문화원과 한국국학진흥원 자료실 관계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